

【논문】

조선전기 여진 정벌의 프로파간다(propaganda)*

—『북정록』의 편찬과 내용 분석—

한성주**

【 차례 】

- I. 머리말
- II. 『북정록』의 내용 분석과 편찬 의도
- III. 『북정록』의 편찬 방법과 사료적 가치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북정록』 편찬의 이면에 있는 정치적 함의인 프로파간다(propaganda)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선은 1460년(세조 6) 두만강 유역에 있는 모련위에 대한 정벌을 실시하였고, 1461년에 이와 관련한 기록을 편찬하였는데, 이 책이 『북정록』이다. 『북정록』은 조선전기 여진 정벌 기록 중 편찬 과정과 간행이 확인된 유일한 관찬 기록이다.

『북정록』은 총 6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진 정벌 그 자체보다는 정벌 배경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명은 조선과 여진이 불화하자, 양자가 화해하도록 지시하였지만, 조선은 여진인들의 행위를背愆으로 규정하였고, 이들에 대한 정벌은 명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묻는 것으로 포장하였다. 따라서 『북정록』의 편찬과 내용은 정벌 자체의 과정보다는 이 경과를 자세히 써 놓아 정벌의 명분과 정당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었다.

세조는 조선의 여진 정벌 직후부터 『북정록』의 편찬을 지시하였고, 총 4차례에 걸쳐 28명 이상의 대신들과 관료들이 참여한 교정을 하였으며, 이후 『북정록』이 인쇄되었다. 결국 여진 정벌 직후 7개월 후에 『북정록』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8061578).

** 강원대학교 사학전공 조교수.

이 간행되었으며, 간행에 쓰인 활자는 1455년(단종 3)에 만들어진 ‘乙亥字’였다. 현재 남아있는 『북정록』은 ‘을해자’로 찍은 유일본이며, 여러 藏書印을 통해 개국공신인 의령남씨 남재의 후손에게 배부되었다가, 남구만과 남학명 부자의 집안에 소장된 후, 일제강점기에 이인영, 해방 후에 이병직과 최현배의 손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또 『북정록』은 조선후기 ‘校書館印書體字’로 재간행되었으며, 필사본의 형태로 전해지기도 하였다. 이것은 『북정록』이 가지는 성격, 즉 세조대 여진 정벌의 명분과 정당성을 알리는 프로파간다적 성격에 충실하였던 결과였으며, 이 성격이 지속된 것을 말해준다. 『북정록』은 실록 사초와 여러 문적을 상고하여 편찬된 것이지만 당대에 편찬된 1차 사료의 성격을 가지며, 일부 내용은 『세조실록』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북정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북정록』의 내용은 당시 조선과 명·여진과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알려주는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주제어: 조선, 여진, 정벌, 『북정록』, 프로파간다

I. 머리말

조선은 女眞에 대한 강온 양면의 정책을 통해 천연적인 국방선이었던 압록강·두만강 유역에 4군 6진을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국경선과 영토 확장을 이루었다. 여진에 대한 조선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은 征伐로, 조선 전기 200여 년 동안 ‘여진 정벌’은 15차례 이루어졌다.¹⁾

조선 전기 ‘여진 정벌’에 관한 기록은 주로 『조선왕조실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외에 몇 권의 ‘征伐記’가 전하고 있는데, 『西征錄』, 『北征錄』, 『國朝征討錄』이 대표적이다.²⁾ 이 중 『서정록』은 1516년(중종 11) 李純이 간행한 것으로, 1437년

1) 조선의 ‘여진 정벌’은 여진인들의 침입이 대규모이거나 심각한 피해를 끼쳤을 때 이루어졌는데, 조선 초기부터 정묘호란 이전까지 여진인들은 총 131회에 걸쳐 조선을 침입하였다(강성문, 1989, 「朝鮮시대 女眞征伐에 관한 연구」, 『군사』 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참고).

(세종 19) 李蕝이 婆猪江의 여진인들을 정벌하고 4군을 개척한 뒤에 그 전말을 기록한 책이다. 『국조정토록』은 1419년(세종 원년)부터 1510년(중종 5)까지 여진과 倭寇를 정벌한 7건을 기록하였는데, 여진 관련이 5건, 왜구 관련이 2건이다. 『북정록』은 1460년(세조 6) 申叔舟가 毛憐衛의 여진인들을 정벌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그 이듬해인 1461년에 간행한 것이다.

그런데 『서정록』과 『국조정토록』은 자세한 편찬 과정을 알지 못한다.³⁾ 다만, 1523년(중종 18) 증종이 『서정록』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1614년(광해군 6) 민간에 있는 『국조정토록』을 謄書하여 實錄을 보관한 곳에 1부를 간직해 두도록 한 적이 있었다.⁴⁾ 이에 반해 『북정록』은 1461년(세조 7) 李克堪이 敎命을 받들어 서문을 지었다는 내용이 있으며, 『세조실록』에도 『북정록』을 교정하게 하고 撰定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⁵⁾ 따라서 『북정록』은 조선 전기 ‘여진 정벌기’ 중 편찬 과정과 간행이 확인된 유일한 官撰 기록이다. 그렇다면, 왜 ‘여진 정벌’ 기록 중 유독 『북정록』만 당대에 편찬·간행되었는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북정록』 편찬의 배경이 되는 1460년의 소위 ‘庚辰北征’은 신숙주 등이 두만강 일대에 사는 모련위 여진인들을 정벌한 사건이다. 경진북정은 신숙주에게 정벌의 책임을 맡겨서 ‘신숙주의 북정’으로 알려져 있고, 모련위를 정벌한 것이기 때문에 ‘모련위 정벌’로도 불려졌다. ‘경진북정’의 직접적인 배경은 모련위의 추장이었던 浪孛兒罕을 조선에서 처형하자, 그의 아들 阿比車가 조선을 침입한 것에 있었다. 그러나 ‘경진북정’의 이면에는 조선과 여진, 그리고 명과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관계와 관점을 찾아볼 수 있어서 ‘경진북정’의 배경과 목적, 과정 및 결과뿐만 아니

2) 현재 『서정록』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북정록』은 리움미술관이, 『국조정토록』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다. 이 중 『국조정토록』은 국내 유일본으로 희소가치와 조선전기 전쟁사 및 서지학 연구의 중요 자료로 평가받아 보물 제1511호(2007.04.20)로 지정되었다.

3) 『서정록』은 편집 체계, 내용상의 규모, 성격면에서 개인 저술이기보다 국가 공식기록문서를 기반으로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임흥빈, 1990, 「《西征錄》의 編著者에 관하여」, 『군사』 21 참고), 『국조정토록』은 16세기 중반에 편찬되어 필사본 형태로 전해지다가 광해군대에 활자로 간행되었다(노영구, 2007, 「『國朝征討錄』 편찬의 특징과 자료적 가치」, 『장서각』 18 참고).

4) 『증종실록』 권49, 증종 18년 11월 8일 갑술; 『광해군일기』(중초본) 권80, 광해군 6년 7월 29일 기묘.

5) 『세조실록』 권23, 세조 7년 2월 15일 병술; 21일 임진, 3월 24일 을축; 25일 병인.

라 조선의 여진 및 명에 대한 인식에 대해 주목하여 왔다.⁶⁾

한편 그동안 『북정록』에 대해서는 해제, 영인,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이현희에 의해 編者가 이극감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북정의 배경, 준비 및 현황, 북정의 단행과 『북정록』의 편찬에 대한 해제가 이루어졌다.⁷⁾ 임재완에 의해서도 『북정록』의 간행 동기와 경위, 筆寫本와 藏書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⁸⁾ 그는 한국서지학회의 『서지학보』를 통해 『북정록』 영인을 보급하기도 하였다.⁹⁾ 그리고 고령신씨문헌간행위원회에서 편찬한 『보한재전서』에 「북정록」이 번역되어 함께 수록되었다.¹⁰⁾

이렇게 ‘경진북정’에 대한 연구와 『북정록』에 대한 해제 등을 통해 정벌의 배경과 과정 등이 밝혀졌지만, 세조가 『북정록』을 편찬하여 간행·배포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북정록』 편찬의 이면에 있는 정치적 함의를 찾아 분석한 시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조는 모련위 여진인들을 정벌한 후 『북정록』을 편찬하여 후세에 남기도록 하였고, 여러 차례 교정을 거쳐 수 백부 이상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이후 『북정록』은 여러 책에 그 내용의 일부가 소개되거나 인용되었으며, 현재 몇 권의 필사본이 전하기도 한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북정록』이 재간행 되기도 하였다.

세조가 『북정록』을 편찬하도록 하고, 수백 권 이상을 인쇄·배포한 이유는 1460년에 이루어진 ‘경진북정’의 정당성을 천명하고, 정벌의 이유와 배경, 그리고

- 6) 이인영, 1947, 「申叔舟의 北征」, 『진단학보』 15; 이인영, 1954, 『韓國滿洲關係史의 研究』, ‘제4장 申叔舟의 北征’, 을유문화사; 河内良弘, 1974, 「申叔舟の女真出兵」, 『朝鮮學報』 71; 강성문, 1989, 앞의 논문; 오종록, 2003, 「申叔舟의 軍事政策과 재상으로서의 經綸」, 『역사학논총』 3·4; 謝肇華, 2005, 「浪字兒罕事件与女真民族精神的覺醒」, 『滿族研究』 5; 王臻, 2006, 「明朝与李朝在郎卜爾罕問題上的政策之比較研究」, 『史學集刊』 1; 황선희, 2007, 「世祖 초기의 女真關係와 北征」,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성주, 2008, 「朝鮮 세조대 毛憐衛 征伐과 여진인의 從軍에 대하여」, 『강원사학』 22·23; 이규철, 2013, 「조선초기의 對外征伐과 對明意識」,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선미, 2020, 「세조대 申叔舟의 對女真活動과 備邊對策」,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이현희, 1967, 「古書解題, 『北征錄』」, 『국회도서관보』 통권 42호.
- 8) 임재완, 1997, 「『北征錄』 解題」, 『서지학보』 19.
- 9) 한국서지학회, 1997, 「『北征錄』 影印」, 『서지학보』 19; 한국서지학회, 1997, 「『北征錄』 影印」, 『서지학보』 20.
- 10) 고령신씨문헌간행위원회, 1984, 『保閑齋全書』 下, 북정록(張在鉉 역주).

성과를 선전(宣傳, propaganda)하고자 함이었다. 프로파간다는 어떤 주의나 주장 등을 대중에게 널리 설명하여 이해와 동의를 얻으려는 활동, 대중의 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정보나 이론을 말한다. 따라서 『북정록』은 프로파간다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는 『북정록』이 관찬 대외정벌 기록이며, 『북정록』을 수백 권 이상 인쇄하여 배포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다른 서적에서도 인용되거나 조선후기 활자본으로 재간행되거나 여러 필사본이 존재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북정록』은 1460년 ‘경진북정’ 1년 후인 1461년에 편찬된 것으로 무엇보다 당대의 1차 사료적 성격을 가지는데, 1471년(성종 2)에 완성된 『세조실록』보다 10년 앞서 편찬된 것이다. 따라서 그 내용에서도 관련 인물, 여진 성명과 지명, 정벌의 배경과 과정, 세조의 諭示 등 『세조실록』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북정록』은 『세조실록』이 만들어지기 전 당대의 史草를 활용한 사례가 되며, 다시 『세조실록』의 사초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구나 『북정록』은 1455년(단종 3)에 만들어진 ‘을해자’로 간행된 것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조선초기 을해자본 중 간행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이른 시기의 것이다. 『북정록』의 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한국 典籍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고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북정록』의 편찬 배경과 성격, 체제 및 내용 분석, 사료적·서지학적 가치를 재분석하고, 『북정록』 편찬의 이면에 있는 정치적 함의인 프로파간다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북정록』의 내용 분석과 편찬 의도

1460년(세조 6)에 이루어진 ‘경진북정’의 배경은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던 모련위의 추장 낭발아한을 조선이 처벌하여 죽이자(1459년 8월), 그의 아들 아버거가 여진인들을 규합하여 조선을 침입한 것에 기인하였다. 조선에서는 낭발아한을 죽인

이유를 여러 종족에게 알리게 하였는데, 첫째, 그가 조선의 女眞和解事¹¹⁾를 방해하면서 조선에서 여진을 정벌하려 한다는 소문을 퍼트리고 그를 부르러 간 조선의 통사를 활로 쏘려고 한 점, 둘째, 여진화해사를 주관하러 간 신숙주가 그를 불렀는데도 오지 않은 점, 셋째 서울에서 侍衛하고 있던 그의 아들 浪伊升哥와 상응하여 조선을 배반하고 중국으로 가려고 한 것이었다.¹²⁾

그러나 낭발아한을 죽인 이유 중 앞의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세조가 함길도도절 제사 楊汀에게 權道에 따라 처치하면서 그를 어루만지도록 지시한 적이 있어서 큰 이유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¹³⁾ 즉 낭발아한 처벌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마지막 그가 서울에서 시위하고 있던 아들 낭이승가와 상응하여 조선을 배반하고 중국으로 가려고 한 것이었다. 낭이승가가 중국에 가려던 정황은 서울에 있던 그의 아내가 妻從兄 崔適에게 알렸고, 최적이 비밀리에 아뢰는 것으로, 그 출처가 낭이승가의 아내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었다.¹⁴⁾

조선에서 이들이 중국으로 가려고 한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바로 직전에 명이 조선에 칙서와 사신을 보내 압록강 유역의 建州衛와 조선이 통교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조선과 건주위의 통교를 끊도록 강요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즉 조선에서 낭발아한을 처벌한 것은 1459년(세조 5) 8월이었고, 명이 조선과 건주위와의 통교를 문제 삼은 것은 그해 2월~7월 사이였다.

세조는 계유정난으로 집권한 이래 취약한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왜·야인들을 招撫하여 그들의 來朝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인들의 내조는 ‘조선견사(朝鮮遣使) 붐(boom)’¹⁵⁾이라고 할 정도로 성황이었

11) 두만강 유역에서는 울랑함·알타리와 울적함이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고 있었는데, 세조는 신숙주를 파견하여 이들을 화해시켜 변경을 안정시키려고 하였다. 세조대 여진화해사에 대해서는 한성주, 2012, 「조선 세조대 '여진 화해사'에 대한 연구-신숙주의 파견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8 참고.

12) 『세조실록』 권17, 세조 5년 8월 3일 입자; 28일 정축; 『북정록』 권지2, 1459년(세조 5) 8월 3일 입자; 8월 28일 정축.

13) 『세조실록』 권16, 세조 5년 6월 11일 신유; 『북정록』 권지2, 1459년(세조 5) 6월 11일 신유.

14) 『세조실록』 권17, 세조 5년 8월 3일 입자; 『북정록』 권지2, 1459년(세조 5) 8월 3일 입자.

다. 여진인들 역시 세조가 즉위한 1455년(세조 1)에만 37회, 약 350여 명이 내조하였으며, 1456년 1월 1일의 望闕禮에는 왜·야인 500여 명이 수반할 정도였다.¹⁶⁾

또 세조는 왕위에 등극하기 이전부터 건주위의 내조를 적극적으로 장려했으며, 건주위와의 통교가 명과 외교적 문제가 될 이유가 있다는 신하들의 의견을 '명의 지시에 따라 여진과 교통하지 않는 것은 중국의 술책에 빠지는 것'이라며 평안도의 길을 개방하면서까지 건주위의 조선 내조를 허락하였다.¹⁷⁾ 그 결과 건주위는 조선에 1456년부터 1459년까지 20회를 내조하였다.¹⁸⁾

『북정록』에는 이러한 사실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북정록』의 서문에는 세조가 內亂을 평정하고 왕위를 이어받자 은혜가 널리 미쳐서 여진인들의 궁벽한 시골까지 모두 내조하기를 갈망하여 稱臣하였으며, 건주위의 수장 李滿住 역시 면모를 고치고 귀순하여 아들을 보내 入侍하려 하였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¹⁹⁾

한편 『북정록』은 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권지1 부분은 1453년(단종 원년) 11월 12일~1459년(세조 5) 3월 10일까지로, 계유정난 이후 李澄玉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평정된 사실을 여진인들에 알리는 것에서 시작하여 왜·야인들이 다투어 朝見하므로 수양대군이 혹은 議政府에서, 혹은 都統府에서 그들을 만나 위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세조가 즉위 전 이만주의 친아들 李都里를 의정부에서 만난 일, 즉위한 후 이만주의 친아들 4명 및 童倉, 凡察의 使者가 연속하여 내조한 일, 松花江 유역의 여진인들이 세조가 즉위한 소식을 듣고 내조한 일, 建州衛都督 동창이 직접 내조한 사실 등이 자세하게 쓰여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올랑합·알타리와 올적합이 원수가 되어 싸우는 까닭에 올적합이 길이 막혀 조선에 내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세조는 신속주를 파견하여 여진인들의 화해를 주관하게 하였다고 써 놓았다.

15) 高橋公明, 1987, 『朝鮮遣使ブームと世祖の王權』, 『日本前近代の國家と對外關係』, 吉川弘文館 참고.

16) 박정민, 2015, 『조선시대 여진인 내조 연구』, 경인문화사, 97쪽.

17) 이규철, 2022, 『정벌과 사대-15세기 조선의 대외정벌과 대명외교』, 역사비평사, 157쪽.

18) 박정민, 2015, 앞의 책, 경인문화사, 105쪽.

19) 『북정록』 서. 이하 출처를 『북정록』이라 밝힌 내용에 대해서는 각주를 생략한다.

또 1457년(세조 3)에 세조는 낭발아한 등 중국 조정에 가는 여진인이 많다고 하면서도 이들은 조선을 배반하고 중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므로 변장들이 가로막지 말고 평상시처럼 대우하라고 하여 두만강 유역에서 명의 衛所 관직을 받은 여진인들이 명에 조공하는 현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세조가 적극적으로 여진인들의 내조를 허용하자, 서울로 오는 여진인들이 끊이지 않게 되어 驛路가 소란하고 폐단이 많아지게 되었으므로,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는 여진인들의 종자를 줄여 2~3인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낭발아한이 성을 내고 함길도도절제사 양정에게 무례하게 굴면서 조선과 낭발아한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결국 낭발아한은 여진화해사를 주관하러 함길도에 온 신숙주로부터 양정에게 무례했던 일을 문책당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낭발아한의 입장에서는, 조선에서 압록강 유역의 건주위 여진인들의 내조를 후대한 결과 자신을 비롯한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들을 상대적으로 홀대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권지2 부분은 1459년 3월 13일~10월 16일까지로 명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조선과 건주위가 통교한 이유를 물은 사실, 함경도에 파견된 신숙주가 울적합에게 사자를 보내 여진화해사에 동참하게 한 일, 명의 뜻에 따라 건주위와의 통교를 중지한 사실, 명에 사신을 보내 건주위와의 통교가 부득이한 것이었음을 설명한 일, 울랑합이 사로잡은 울적합을 돌려주며 여진인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낭발아한 등이 양정에게 원한을 품어 그를 부르러 간 통사를 활로 쏘려고 하였고, 또 사로잡은 울적합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으며, 조선에서 여진을 치려고 한다고 선동하여 변경의 분쟁을 일으키려 하였다고 기록하여, 그가 사실상 여진화해사에 참여하지 않고 화해의 일을 방해한 점을 설명하였다.

그러던 중 서울에서 근시하던 낭발아한의 아들 낭이승가가 휴가를 청하여 길주로 갔는데, 이에 대해 낭이승가의 처종형 최적이 그가 중국으로 향할 것임을 밀고하면서 조선에서는 낭발아한 일족을 처형하기에 이르렀고, 조선에서는 낭발

아한을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진인들에 널리 알렸다고 기록해 두었다.

권지3 부분은 1459년 11월 21일~1460년(세조 6) 2월 25일까지로, 도망한 낭발아한의 아들 아버지가 동류를 규합하여 조선을 침입하려는 정황, 여진인들의 동요와 조선의 비변 대책, 아버지 및 여진인들의 침입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 예조판서 홍윤성을 威吉道助戰元帥로 파견하여 한편으로는 양정을 돕게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진인들을 회유하여 안정시키려 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특히 여진인들이 명에 낭발아한을 조선에서 죽였다고 고소하여 명의 사신 張寧과 武忠이 칙서를 가지고 조선에 온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 이에 조선에서는 명에 사신을 보내 낭발아한이 모반하다가 처벌되었고, 그의 아들 아버지가 동류를 모아 조선을 침입하였다고 알렸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세조는 여진인들의 침입이 계속되고 건주위와 모련위가 연결되었다는 말이 있자, 모련위뿐만 아니라 건주위까지 공격하여 멸망시키려고 하였다.20) 그렇지만 세조는 다시 양정과 홍윤성에게 거병하여 여진인들을 모두 죽인다면 싸움이 계속될 것이므로 형세상 여진인들을 초무하여 안집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여진인들을 진정시키도록 지시한 사실을 기록해 두었다.

그러나 여진인들이 함길도의 내륙인 鏡城에 침입하여 別差 前 萬戶 宋憲 등을 죽이고 남녀 9인과 우마 39마리를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때 세조는 蠻夷로써 만이를 공격하는 형세를 만들고자 조선에 내조한 울적함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권지4 부분은 1460년 3월 1일~4월 29일까지로, 여진인들의 침입과 조선의 격퇴 사실, 조선을 침입하던 아버지가 사망한 일, 세조가 장녕과 무충 등 명 사신을 면담한 일, 내조한 울적함에게 조선이 울랑함을 정벌하게 되면 함께 공격하게 한 일, 홍윤성의 여진 회유 활동과 관련된 내용, 조선에서 장녕이 가지고 온 명의 勅諭에 대해 回奏한 일 등이 쓰여 있다.

그런데 세조는 조선을 침입한 여진인들에게 약탈한 사람과 물건을 쇠환시키기도

20) 이 내용은 『북정록』에만 기록되어 있다.

록 강경하게 지시하였고, 이에 대한 성과가 없자 신숙주 등을 불러 복정을 결단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하지만 홍윤성이 귀순한 여진인들을 서울로 올려보내고, 會寧에 도착한 신숙주가 얼음과 눈이 녹기 시작해 강물이 넘쳐흘러 정벌을 가을로 연기한다고 보고하여 모련위 정벌이 연기된 사실을 기록하였다.

한편 세조는 홍윤성이 올려보낸 올랑합 등의 肅拜를 미루고 그들을 두렵게 하였고, 왜·야인들과 함께 인견하면서 올랑합의 죄상을 묻고 힐책하였으며, 올적합 등 성심으로 귀순하는 추창 이외에는 다시 올려보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사이 명에서는 여진인들과 화해하고 전쟁을 그치라는 칙서를 보내왔다고 한다.

권지5 부분은 1460년 5월 2일~7월 29일까지로, 여진인과 화해하라는 명의 칙서에 회주한 일, 신숙주가 함길도에서 여진인들의 동향을 보고한 내용, 송헌을 죽인 豆難夕가 내조하고 돌아가다가 길주에서 송헌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한 일, 여진인들이 다시 침입하기 시작한 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명에서 낭발아한의 아내와 딸을 돌려보내도록 칙서를 보내왔으나, 조선에서는 그의 아내가 본래 계통이 조선이므로 그 소생 딸 등과 함께 경성의 본가로 보냈다고 회답한 일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여진과 조선을 화해시키는 일로 모련위에 온 명 사신 馬鑑이 여진인들의 편을 들며 조선에서 낭발아한의 일족을 돌려보낼 것을 압박하였다고 한다.

또 조선이 선위사를 파견하여 마감을 접대하였으나, 마감은 조선의 회령 성내에 들어오려고 하였고, 조선에서는 명의 칙지가 조선과 관련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조선의 마감에 대한 대응 방법 및 마감과 조선의 선위사와의 문답 내용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마침내 세조가 모련위 정벌을 결정하고, 신숙주와 홍윤성을 파견한 과정이 쓰여 있다. 이때 세조는 신숙주와 홍윤성을 선위사라 이름하여 파견한 뒤, 마감을 회령성에 피신시킨 후 모련위를 정벌하게 하였는데, 한명회 등이 명의 사신이 와 있는 상황에서 여진을 정벌하는 것에 우려하자, 신숙주와 홍윤성에게 전권을 주어 모련위 정벌에 대한 여부를 현지에서 판단하게 한 것으로 쓰여 있다. 그리고 세조는 모련위 정벌 후 평양에서 마감과 회합하여 건주위까지 정벌하는

것을 모의하려고 하였다고 한다.

권지6 부분은 1460년 8월 3일~11월 11일까지로, 조선의 강경한 태도에 불안감을 느낀 마감이 명으로 돌아간 일과 마감이 없는 상황에서 한명회 등이 정벌을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세조의 언급 등이 쓰여 있으며, 명에 주문사를 보내 변경을 침입하는 여진인들을 기회를 보아 처치하게 하였다고 주문한 사실 등을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신숙주가 정벌을 단행한 일의 자세한 경과와 결과, 정벌에 참여한 제장들에 대한 포상 등에 대해 써 놓았다. 특히 세조는 정벌 직후 평양에 순행하여 신숙주와 홍윤성을 불러 보았으며, 서울에 돌아와서 정벌에 나간 장수와 군사들에게 연회를 베풀며 포상하였다고 한다.

[표 1] 『북정록』의 권별 시기와 분량

권지	권별 시기	면수 (총 257)
(서)	-	6
1	1453년(단종 원년) 11월 12일 갑자~1459년(세조 5) 3월 10일 임진	42
2	1459년 3월 13일 을미~10월 16일 갑자	38
3	1459년 11월 21일 기해~1460년(세조 6) 2월 25일 임신	44
4	1460년 3월 1일 무인~4월 29일 갑인	32
5	1460년 5월 2일 정축~7월 29일 계묘	46
6	1460년 8월 3일 병오~11월 11일 계미	49

한편 정벌의 총책임자였던 신숙주와 조선군이 두만강을 건넌 것은 8월 27일로 이들은 대체로 30일에 회령과 종성으로 돌아왔으므로, 조선군의 작전 기간은 사실상 총 4일간이었는데, [표 1]을 보면 『북정록』은 조선의 여진 정벌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북정록』에는 계유정난 이후부터 왜·야인들의 내조가 성행한 일, 중단되었던 건주위의 내조가 다시 이루어진 일, 조선의 여진화해사 과정과 낭발아한이 변장과 틈이 벌어지며 여진화해사를 방해한 일, 낭발아한의 아들 낭이승거의 배반과 조선의 처벌, 낭발아한의 아들 아버거의 침입 등이 많은 분량에 걸쳐 서술되

었다.

이와 함께 『북정록』은 이 시기 명이 조선과 건주위와의 통교 및 조선의 낭발아한 처벌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과 명의 사신 마감이 모련위에 와서 조선과 여진을 화해시키려고 하면서도 조선에 낭발아한 일족 등을 돌려보내도록 압박한 사실 등을 기록해 두었다.

그런데 명에 대해 事大를 표방하는 조선의 입장을 보면, 명의 지시는 절대적일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조선 초의 사대는 그렇게 절대적이지만은 않았다. 명분과 정당성이 있으면 조선은 명이 여진과 화해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모련위를 정벌할 수 있는 것이었다.

즉 조선은 줄곧 명에 대해 두만강 유역은 '우리의 編氓', '낭발아한은 우리나라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그들이 조선을 배반한 변경 안쪽의 도적이라고 주장하였다.²¹⁾ 이러한 인식 아래 『북정록』에는 조선의 은혜를 저버린 낭발아한과 조선을 침입한 여진인의 행위를 背恩으로 규정하였고, 이들에 대한 정벌은 명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천륜을 어긴 여진인들의 죄를 묻는 것으로 포장되었다. 그리고 『북정록』의 편찬과 그 내용은 정벌 자체의 과정보다는 그 배경과 경과를 자세히 써 놓아 정벌의 명분과 정당성을 명확히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Ⅲ. 『북정록』의 편찬 방법과 사료적 가치

조선 전기 여진 정벌 기록 중 하나인 『西征錄』은 1433년(세종 15)과 1437년(세종 19)에 압록강 유역에 거주하는 건주위를 정벌한 기록이지만, 『서정록』의 편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서정록』은 개인 저술로 보면 서도 다만 그 편집 체제와 내용을 근거로 하여 『세종실록』 편찬에 참여한 李藏의 후손이 사초나 실록 등 국가의 공식기록물을 그대로 인용하여 쓴 것으로 보고 있

21) 『세조실록』 권19, 세조 6년 3월 2일 기묘(浪字兒罕等世居我國地面, 卽是編氓, 且叛亂事迹明白, 門庭之寇, 事急未暇奏聞, 字兒罕既爲我國之民).

다.²²⁾ 이후 『서정록』은 이천의 외현손 李純에게 전해졌고, 이순이 1516년(중종 11)에 함경도도사로 재직하면서 『서정록』의 발문을 썼으며, 그해 6월 21일 목판본으로 처음 인쇄 간행하였다.²³⁾ 이렇게 간행된 『서정록』은 7년 뒤인 1523년(중종 18)에 도승지 김희수를 통해 중종에게도 전해져 중종이 『서정록』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⁴⁾

또 보물 제1511호로 지정되어 있는 『國朝征討錄』은 정확한 편찬 시기와 편찬자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다. 『국조정토록』은 임진왜란 전까지 조선이 왜·야인을 정벌한 7차례의 기록을 정리한 것으로, 1614년(광해군 6) 비변사에서 민간에 전하는 것을 寫字官에게 똑같이 등서하여 광해군이 볼 수 있게 하였다고 하자, 광해군이 『실록』을 봉안한 곳에도 1부 나누어 두게 하였다.²⁵⁾ 즉 이 책은 16세기 후반 민간에서 수고본 형태로 작성되었던 것을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에 訓練都監字로 간인한 것이다.²⁶⁾

이에 반해 『북정록』은 그 제작 시기뿐만 아니라, 편찬 주체와 방법, 편찬 의도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즉 『북정록』의 서문은 1461년(세조 7) 3월 하순에 작성한 것으로 이극감이 쓴 것이다.²⁷⁾ 『북정록』의 서문에 의하면, 정벌 직후 군사들이 개선해 돌아오자, 세조가 전궁을 宗廟에 고하고 장수와 군사들에게 상을 나누어 준 뒤 신속주와 이극감에게 '오랑캐들을 모두 궤멸시켜 그들의 막사가 텅 비었으니 경사가 이보다 더 클 수 없다. 그대들은 정토의 규모와 차례를 기록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후세에게 보임으로써 무공을 잊지 않도록 하라.'²⁸⁾고 하여 『북정록』의 편찬을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2) 임흥빈, 1990, 앞의 논문, 『군사』 21 참고.

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9, 『西征錄』 참고.

24) 『중종실록』 권49, 중종 18년 11월 8일 갑술.

25) 『광해군일기(중초본)』 권80, 광해군 6년 7월 29일 기묘.

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國朝征討錄』 참고.

27) 『북정록』 서.

28) 『북정록』 서.

한편 세조가 1461년 2월 이미 이조참판 이극감에게 『북정록』을 대조·교정²⁹⁾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극감이 서문을 쓴 3월 하순 이전에 『북정록』의 내용 서술은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북정록』의 편찬은 정벌 직후부터 바로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북정록』의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편찬되었을까? 1467년(세조 13) 조선은 강순·어유소·남이 등을 파견하여 마침내 건주위를 정벌하였는데, 정벌 직후 세조는 實錄과 여러 문적을 상고하여 그중에서 『북정록』에 기록할 만한 일을 표하여서 아뢰게 하였다.³⁰⁾ 여기서 말한 실록이란 역대 왕조실록 중 조선과 건주위와의 관계를 기록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 문적이란 당대에 승정원이나 춘추관 등에서 작성한 문건들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보면 두만강 유역의 모련위를 정벌한 1460년의 ‘경진 『북정록』’과 압록강 유역의 건주위를 정벌한 1467년의 ‘정해 『북정록』’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³¹⁾ 따라서 1460년 ‘경진 『북정록』’ 역시 정벌 직후 실록과 여러 문적을 상고하는 방식으로 편찬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경진북정 후 6개월이 지난 1461년 2월에 이극감에게 대조·교정을 시킬 정도로 그 내용과 구성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세조는 이극감과 우부승지 金國光에게 『북정록』을 再校하게 하였는데,³²⁾ 『세조실록』에는 『북정록』을 총 4차례나 교정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북정록』의 교정에는 영의정 이하 28명 이상의 대신들과 승지들이 참여하였다.

29) 『세조실록』 권23, 세조 7년 2월 15일 병술.

30) 『세조실록』 권44, 세조 13년 10월 13일 을사(考實錄及諸文籍中, 標可記北征錄之事以啓).

31) 이를 혼동하여 『북정록』을 하나로 보아 이 책이 1468년에 간행되었다고 보기도 하였다(이현희, 1967, 앞의 논문, 『국회도서관보』 통권 42호 참고). 그러나 1460년과 1467년의 조선의 여진 정벌은 그 지역과 대상이 상이했으므로 두 개의 『북정록』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아직 1467년의 ‘정해 『북정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32) 『세조실록』 권23, 세조 7년 2월 21일 임진.

[표 2] 1461년 『북정록』 교정 사항

일시	내용	참여인원
2월 15일	이조참판 이극감이 讎校	1
2월 21일	이조참판 이극감, 우부승지 김국광 再校	2
3월 24일	좌의정 신숙주, 예조판서 홍윤성, 호조참판 이극감, 군기감정 김겸광, 사설편사 박진순, 의정부사인 안관후, 예조정랑 신말주, 좌부승지 김국광 讎校, 하성위 정현조가 신숙주에게 질문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문신 최항의 무리에게 정밀한 讎校를 하게 함	10
3월 25일	하동부원군 정인지, 봉원부원군 정창손, 영의정 강맹경, 좌찬성 황수신, 좌참찬 이승손, 공조판서 윤사윤, 호조판서 조석문, 공조참판 어효첨, 형조참판 성임, 예조판의 서거정, 호조참의 이예, 판사설편사 임원준, 좌승지 한계희, 우부승지 홍응, 동부승지 이문형 讎校	15

이극감이 『북정록』의 서문을 작성한 3월 하순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3월 24일에 세조는 좌의정 신숙주 등을 불러 『북정록』을 다시 교정하게 하고, 인쇄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인쇄할 수 있겠는가? 인쇄한다면 몇 건이나 인쇄할 것인가?”라고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수백 권은 인쇄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다만 신 등은 복잡한 일에 대하여 본시 겪은 바이고, 이제 처음 찬한 것에서 지금에 이르기 까지 눈에 익고 말에 익숙하여 오류를 깨닫지 못할 것이니, 문신 최항과 같은 무리에게 명하시어 정밀한 讎校를 가한 연후에 인쇄하소서.”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고 하였다.³³⁾

3월 24일의 교정은 좌의정 신숙주 이하 총 10명의 대신과 승지 등이 참여한 것으로, 『북정록』에 대한 세 번째 교정이 이루어진 날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정 이후 세조는 이제 『북정록』을 인쇄할 수 있는지, 인쇄한다면 몇 권을 인쇄할지를 물은 것이다. 그러자 신숙주는 수백 권은 인쇄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다시 문신 최항 등에게 정밀한 교정을 보게 한 후에 인쇄하도록 건의하였다.

33) 『세조실록』 권23, 세조 7년 3월 24일 을축.

최항은 당시 지중추원사로, 1434년(세종 16)에 장원으로 문과에 급제한 후, 집현전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하였고, 『五禮儀註』·『東國正韻』·『고려사』·『세종실록』·『경국대전』 등의 편찬에 참여한 바 있었다. 그런데 1461년 3월 14일에 최항과 한계희 등 문신 30여인에게 한글을 사용하여 蠶書를 번역하게 한 것으로 보아 신숙주가 말한 ‘문신 최항과 같은 무리’는 바로 한계희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를 보면 신숙주가 정밀한 교정을 건의한 다음 날인 3월 25일에 『북정록』에 대한 네 번째 교정이 이루어졌는데 총 15명의 대신과 승지 등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날의 교정에 최항이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한계희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 신숙주의 건의와 같이 문신들에 의한 정밀한 교정이 한 차례 더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북정록』에 대한 교정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3월 말에 교정이 끝나고 바로 인쇄·간행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를 통해 당시 『북정록』은 정벌 직후부터 왕명에 의해서 편찬이 시작되어 7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총 28명 이상의 대신과 승지들이 최소 4차례의 교정을 거친 후에 1461년에 간행되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북정록』의 인쇄 부수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숙주의 의견처럼 수백 권이 인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북정록』 간행에 쓰인 활자는 1455년(단종 3)에 만들어진 ‘乙亥字’로 확인된다.³⁴⁾ ‘을해자’는 계유정난 이후 안평대군의 글씨를 자본으로 한 ‘庚午字’를 녹여 주조한 것이며, 姜希顔의 글씨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을해자’는 1434년(세종 16)에 만들어진 ‘甲寅字’와 함께 가장 오랫동안 임진왜란 전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는데, 현재 전래되고 있는 을해자본을 보면 1461년 『訓辭』를 찍어낸 것이 초기의 것이다. 1461년에 간행된 『북정록』 역시 ‘을해자’가 제작된지 불과 6년 뒤에 간행된 것으로 을해자본 초기의 서적이며, ‘을해자’가

34) 이경노, 1987, 『통문관 책방비화』, 민화회, 31쪽; 임재완, 1997, 앞의 논문, 『서지학보』 19 참고.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³⁵⁾ 즉 ‘을해자’는 대·중·소자의 3종이 주조되었는데,³⁶⁾ 그중에서도 강희안체의 특징³⁷⁾이 잘 나타나는 것이 중자이며, 『북정록』의 본문은 중자가, 雙註는 소자가 사용되었다.

리움미술관에 소장된 『북정록』은 현재까지 ‘을해자’로 간행된 유일한 것으로, 원래 李仁榮이 1939년 겨울에 어느 한 중개인에게서 구입한 것이다.³⁸⁾ 그는 자신의 수집한 고서들을 평양의 淸芬室이라는 서재에 소장하였고, 1937년부터 1944년까지 수집한 고서 중에서 淸芬실에 소장하였던 서적들의 목록을 만들었는데, 그 목록집이 바로 『淸芬室書目』이다. 이인영은 『淸芬실서목』에 『북정록』을 기재하면서 이 책의 가격이 千金이며 淸芬실에서 가장 高價의 책이라고 하였다.³⁹⁾

해방 이후 이인영은 淸芬실에 소장되어 있던 전적을 비밀리에 서울로 올려보냈는데, 이 책을 李秉植이 양도받아 자신의 서재인 守愼齋에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6·25가 발발하기 2주일 전인 1950년 6월 11일에 서울의 한국고미술협회에서 수신재에 소장하던 장서 1천 5백여 권의 책을 경매하였고, 이때 『북정록』도 당시 35만원이라는 가격으로 낙찰되었다.⁴⁰⁾

현재 『북정록』에는 「松隱」, 「李秉植印」, 「弄鶴山人」, 「弘益人間」, 「李仁榮印」, 「외술」, 「宜寧」, 「南子聞□□□」, 「晦隱齋南氏藏書之記」 등 다수의 藏書印이 찍혀 있는데,⁴¹⁾ 이중 「宜寧」, 「龜亭後孫」, 「南子聞□□□」, 「晦隱齋南氏藏書之記」 등으로 보아 이 책은 의령남씨 집안에서 소장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龜亭은 개국공신 南在(1351~1419)의 호이며, 晦隱은 南九萬(1629~171)의 아들인 南鶴

35) 이인영, 1942, 「을해자소고」, 『서물동호회회보』 17 참고.

36) 대자는 세로 2cm, 가로 2cm이고, 중자는 세로 1.2cm, 가로 1.5cm이며, 소자는 세로 1cm, 가로 0.7cm이다.

37) 강희안 해서체의 특징은 조맹부체의 약간 납작한 점과 공통하는데, 글자의 크기는 세로 1cm, 가로 1.3cm로 높이에 비하여 넓이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38) 이인영, 1944, 『淸芬室書目』, 보화각, 258-260쪽.

39) 위와 같음.

40) 이경노, 1987, 앞의 책 참고(당시 경매된 책 가운데 『三國遺事』가 135만원, 『高麗史』가 67만원, 『建州紀程圖記』가 65만원, 『북정록』이 35만원 등이었는데, 『북정록』이 4번째로 고가였다. 당시 『북정록』은 3冊으로 되어 있었다.

41) 임재완, 1997, 앞의 논문, 『서지학보』 19 참고.

鳴(1654~1722)의 호이다.

弄鶴山은 평양부 서쪽 28리에 있는 龍岳山인데,⁴²⁾ 이인영의 호가 鶴山이므로 그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松隱은 서화가인 이병직의 호이고, 외솔은 한글학자인 崔鉉培의 호이다.

따라서 이 『북정록』은 1461년에 ‘을해자’로 간행된 것 중 하나가 개국공신인 의령남씨 남재의 후손에게 배부되었고, 남구만과 남학명 부자의 집안에 소장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이인영, 해방 후 이병직, 최현배의 손을 거쳤음을 알 수 있어 이 책의 소장 내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가치를 가진다.

한편 『북정록』은 미국 버클리대학교(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동아시아도서관에 1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校書館印書體字’로 간행된 것이다.⁴³⁾ ‘교서관인서체자’는 숙종 때 만들어진 것을 ‘전기교서관인서체자’라고 하고, 경종 때 만들어진 것을 ‘후기교서관인서체자’라고 하는데, 동아시아도서관에 소장된 것은 ‘전기교서관인서체자’이다. ‘전기교서관인서체자’는 1684년(숙종 10) 이전에 주도된 것으로 추정하므로, 이 책은 1674~1684년 사이에 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북정록』은 1461년에 ‘을해자’로 처음 간행되었으며, 조선 후기 숙종 연간에 ‘교서관인서체자’로 재간행되었다.

또 『북정록』의 필사본도 전하는데, 하나는 『保閑齋全書』 국역본 下에 전체 내용이 실려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권1~3만이 있는 것(1책 3권, 청구기호 古 2161-1-158)과 전체 내용이 있는 것(1책 6권, 청구기호 윤정古2151-20)이 있다.⁴⁴⁾ 『보한재전서』에 실린 필사본은 ‘을해자’본을 대본으로 필사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⁴⁵⁾ 국립중앙

42) 『신증동국여지승람』 제51권 평안도 평양부.

43) 임재완, 1997, 앞의 논문, 『서지학보』 19 참고(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교서관인서체자’의 『북정록』은 1939년에 일부분을 사진으로 찍고서 축소하여 실은 것이라고 한다). 이 책은 6卷 1冊의 형태이다(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44) 임재완은 『保閑齋全書』 국역본 下에 있는 것과 국립중앙도서관에 권1~3 일부만 있는 것을 밝혀는데(임재완, 1997, 앞의 논문, 『서지학보』 19 참고), 본고에서는 이에 더해 국립중앙도서관에 1책 6권의 필사본이 하나 더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45) 임재완, 1997, 앞의 논문, 『서지학보』 19 참고.

도서관 소장 필사본들은 ‘교서관인서체자’본을 대본으로 필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필사본의 필사 주체나 시기 등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徐居正이 중심이 되어 1478년(성종 9)에 편찬된 『東文選』에는 이극감이 쓴 『북정록』의 서문이 실려 있으며⁴⁶⁾ 權文海(1534~1591)가 지은 『大東韻府群玉』에도 『북정록』에 대한 소개가 있다.⁴⁷⁾ 또 인조 때 처음 편집·간행되기 시작한 『列聖御製』에도 『북정록』을 인용하여 세조의 유시문, 교지, 악부(사) 등을 기록하였다.⁴⁸⁾ 이를 통해 보면 『북정록』은 다른 책에 일부 내용이 인용되어 사용되거나 『세조실록』을 만들 때 다시 사초로써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북정록』은 1461년에 처음 ‘을해자’로 간행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책에 소개되었고, 필사본의 형태로 전해지기도 하였으며, 조선 후기에 ‘교서관인서체자’로 재간행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북정록』이 가지는 성격, 즉 세조대 여진 정벌의 명분과 정당성을 알리는 프로파간다적 성격에 충실하였던 결과였으며, 이러한 프로파간다적 성격이 효과적으로 지속된 것을 말해준다.

1461년에 편찬된 『북정록』은 실록과 여러 문적을 상고한 것이지만 당대에 편찬된 것으로 1차 사료의 성격을 가진다. 『북정록』의 내용 대부분은 『세조실록』과 동일하지만, 일부는 『세조실록』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북정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다음은 『북정록』에만 기록되어 있는 중요 부분들을 일부 정리한 것이다.

1454년(단종 2) 수양대군이 태종의 능인 獻陵의 남산에서 사냥하고 한강에 이르러서 여진인들에 술을 마시게 했을 때 洪貴童이 오지 못하자 그를 처벌한 내용은 『단종실록』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 이만주의 아들들이 내조한 ‘횃수가 4번에 이르렀다’는 내용과 이만주의 둘째 아들 ‘이도리가 가족을 데리고 서울에 머무르면서 시위하고자 하였다’는 내용 역시 『북정록』에만 있다.

그리고 『북정록』에는 세조가 즉위(1455년)하자, 그 소식을 듣고 그해 겨울에 松

46) 『東文選』 제94권, 序, 北征錄序.

47) 『大東韻府群玉』 권18.

48) 『列聖御製』 제3권, 세조대왕 詩, 악부 3장; 제4권 세조대왕 文.

花江의 지류인 愁濱江의 南訥兀狄哈 加兒帖哈 등 및 火刺溫兀狄哈 阿充哈 등 여러 여진 부족이 내조한 사실 및 1457년에 낭발아한 등 여진인들이 중국 조정에 가는 자가 많았다는 내용 등이 있다.

1458년(세조 4)에는 조선에 내조한 인물 중 記三奴가 있는데, 『북정록』에서는 그가 李滿住의 從孫이라고 하였으며, 額里忒木은 童倉의 아우, 馬刺古는 동창의 조카라고 하는 등 조선에 내조한 여진인들의 친족관계가 『세조실록』 보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고납합의 경우 세조가 東郊에 거둥했다가 환궁해서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북정록』에는 그가 '술에 취해 쓰러졌다'는 내용이 있고, 건주위 도독 동창이 내조하였을 때는 '精騎 8백'을 동원하여 儉巖山에서 사냥하고 그를 호종시켰다고 한다. 세조가 모화관에서 활 쏘는 것을 관람할 때 동창이 칼을 차고 호위하였다는 내용도 『북정록』에만 나타난다.

1459년 조선은 올랑합·알타리와 올적합을 화해시키는 '여진화해사'를 추진하였는데, 이때 올랑합이 사로잡아 온 올적합 27인을 돌려주게 하였다. 그런데 『북정록』에만 이들 27인의 성명과 이들을 붙잡아온 사람, 그리고 이들을 수령한 사람들의 성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 『북정록』에는 세조가 1460년 2월에 모련위와 건주위가 연결되었다는 말을 듣고 정병 5백 명으로 곧바로 건주위를 공격함이 옳다고 하면서 모련위와 건주위를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세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1460년 4월 조선을 침략한 올랑합이 용서를 빌고자 내조하였을 때, 세조는 철퇴 20개를 벌여놓고 '너희들이 본래 아버지를 공경했느냐, 나를 공경하였느냐'고 물으며, '너희들을 모두 죽이고 군사를 일으켜 멸망시킬 것'이라며 위협하였는데, 세조가 말한 내용은 『세조실록』 보다 『북정록』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1458년 신숙주가 평안도도체찰사가 되어 배사하자, 세조는 宦官 安忠彦을 보내어 뒤쫓아가서 慕華館에서 貂裘를 주고 '어제는 술에 취해서 은근한 정을 펴지 못하였는데, 술이 깨니 모자라는 정을 함께 말할 사람이 없다. 이제 초구를 하사하여

지극한 정을 조금 표한다'라고 한 내용 역시 『세조실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1459년 4월 15일에는 함경도에 있는 신숙주와 양정에게 여진인들을 타일러 중국 사신인 무충의 지시를 따르게 하되 보고 들은 것을 몰래 와서 임금께 고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있는데, 이 역시 『세조실록』에서는 찾을 수 없는 내용이다.

1460년 2월 12일 함길도도절제사 양정에게 보낸 유시문 중에는 '경의 집안은 무사하다. 경의 아내가 비록 본래 지병이 있지만, 탈 없이 잘 있으며, 내가 항상 진심으로 보호하니, 경은 이를 알라. 다만 경과 함께 모여 射侯場에서 百中 때에 賞罰齣을 하지 못하니, 이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또한 경의 집 당나귀 소리가 매양 대궐에 들리니, 더욱 경이 변방에서 수고하는 괴로움이 생각난다'는 내용이 『북정록』에만 있는데,⁴⁹⁾ 이를 통해 『세조실록』을 만들면서 해당 유시문 중 이 내용은 삭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해 3월 10일 양정에게 보낸 또 다른 유시문의 말미에는 '사후장에서 사람을 시켜 대신 쓰게 하였는데, 앞의 글은 모두 내 붓으로 쓴 것이다. 바야흐로 사후장에 있어서 직접 쓸 겨를이 없다'고 하였는데, 유시문의 이 마지막 글은 세조가 직접 쓴 것이지만, 『세조실록』의 편찬 과정에서 이 내용도 삭제되었다.

1460년 7월 7일, 세조는 모련위에 온 명 사신 마감의 선위사로 이극배를 파견하였는데, 『세조실록』에는 그에게 준 사목 일부만 기록되었지만, 『북정록』에는 사목 전체가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이 사목 중에는 마감이 역지로 조선에 들어오려고 하면 '대인은 칙지를 어기고 우리나라의 경계로 들어올 수 없으며, 우리나라 역시 칙지 없이 대인을 성 안에서 대접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하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 내용은 『세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세조는 7월 16일에도 양정과 이극배에게 마감을 접대하는 일과 관련된 사목을 보냈는데, 대체로 마감의 여진인 쇄환 요구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한편 마감에 대한 위로와 접대에 충실하여 그가 감격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이 사목 전체는

49) 양정에게 보낸 또 다른 유시문(1460년 9월 11일)에도 '내가 늘 대궐에 있으면서 경의 집 나귀 울음 소리를 듣고 언제나 탄식하지 않음이 없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세조실록』에서는 해당 부분만 삭제되었다.

『북정록』에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북정록』에는 칙지가 없다는 이유로 마감을 조선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실과 그의 여진인 쇄환 요구를 조선이 따르지 않았던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세조실록』을 편찬하면서 이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IV. 맺음말

1460년(세조 6) 조선은 모련위 여진인들을 정벌하였는데, 이를 ‘경진북정’이라고 한다. ‘경진북정’은 신숙주에게 정벌의 책임을 맡겼기 때문에 ‘신숙주의 북정’으로 불려오기도 했고, 모련위를 정벌했기 때문에 ‘모련위 정벌’로도 불려져 왔다. 『북정록』은 ‘경진북정’ 이듬해인 1461년에 간행된 것으로, 조선 전기 ‘여진 정벌기’ 중 편찬 과정과 간행이 확인된 유일한 관찬 기록이다.

『북정록』은 총 6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453년(단종 원년) 11월부터 1460년 11월까지 기록되어 있다. 권지 1부분은 1453년 11월 12일부터 1459년(세조 5) 3월 10일까지로, 계유정난 이후 이징옥의 반란이 진압된 것을 여진인들에게 알린 일, 세조 즉위 전 이미 왜·야인들이 다투어 내조한 사실, 중단되었던 조선과 건주위와의 직접 통교가 시작된 일, 역로의 폐단으로 여진인들의 상경시 수행원의 수를 줄이자 모련위의 낭발아한이 화를 내고 변장인 양정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일들이 기록되었다.

권지 2부분은 1459년 3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로, 명에서 조선과 건주위와의 통교를 문제 삼자 조선이 통교를 중지한 일, 조선이 올랑합·알타리와 올적합의 화해를 주관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낭발아한이 여진화해사를 방해한 사실, 낭이승가가 조선을 배반하고 중국으로 향하려던 형적이 있어서 조선이 낭발아한 일족을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쓰여있다.

권지 3부분은 1459년 11월 21일부터 1460년 2월 25일까지로, 낭발아한의 아

들 아버지가 도망하여 조선을 침입한 일, 낭발아한의 죽음을 조사하러 명 사신들이 조선에 온 일, 여진인들이 함길도 내륙인 종성에 침입하여 별차 전 만호 송헌 등이 죽은 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권지 4부분은 1460년 3월 1일부터 1460년 4월 29일까지로, 조선을 침입했던 아버지가 죽은 일, 세조가 명 사신들을 면담한 일, 세조의 북정 결단과 명이 여진인들과 화해하라고 칙서를 보내온 일들이 기록되었다.

권지 5부분은 1460년 5월 2일부터 7월 29일까지로, 여진인들이 조선을 재침입한 사실과 명이 칙서를 보내 낭발아한의 처와 딸을 돌려보내라고 한 일, 명의 사신 마감이 모련위 지역에 와서 여진 초무 활동을 하면서 조선의 회령 성내에 들어오려고 한 일, 여진 정벌을 위해 신숙주와 홍윤성을 파견한 일들이 쓰여졌다.

마지막으로 권지 6부분은 1460년 8월 3일부터 11월 11일까지로 신숙주가 모련위 정벌을 단행한 일의 자세한 경과와 결과, 정벌에 참여한 장수들에 대한 포상 등이 기록되었다.

조선의 여진 정벌 작전 기간은 8월 27일에서 30일로 총 4일간이지만, 『북정록』에는 사실상 정벌의 배경에 관한 내용을 훨씬 더 많이 담고 있다. 특히 계유정난 이후부터 왜·야인들의 내조가 성행한 것, 중단되었던 건주위의 내조가 다시 이루어진 것, 조선의 여진화해사와 낭발아한이 변장과 탐이 벌어지며 여진화해사를 방해한 것, 낭발아한의 아들 낭이승거의 배반과 조선의 처벌, 낭발아한의 아들 아버지의 침입 등이 많은 분량에 걸쳐 서술되어 있다.

또 명이 조선과 건주위와의 통교와 조선의 낭발아한의 처벌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과 명의 사신 마감이 모련위에 와서 조선과 여진을 화해시키고 조선으로 하여금 낭발아한 일족 등을 돌려보내도록 압박한 사실 등도 기록되어 있다.

결국 『북정록』에는 조선의 은혜를 저버린 낭발아한과 조선을 침입한 여진인의 행위를 背攄으로 규정하였고, 이들에 대한 정벌은 명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천륜을 어긴 여진인들의 죄를 묻는 것으로 포장되었다. 따라서 『북정록』의 편찬과 그 내용은 정벌 자체의 과정보다는 이러한 경과를 자세히 써 놓아 여진 정벌의 명분과 정당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었다.

한편 『북정록』은 그 제작 시기뿐만 아니라, 편찬 주체와 방법, 편찬 의도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북정록』의 서문은 이극감이 작성하였는데, 그의 서문은 1461년(세조 7) 3월 하순에 작성된 것이며, 이에 의하면 세조가 정벌 직후 신숙주와 이극감에게 ‘정토의 규모와 차례를 기록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후세에게 보임으로써 무공을 잊지 않도록 하라.’고 하여 『북정록』의 편찬을 지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북정록』은 여진 정벌이 6개월 정도 지난 1461년 2월부터 교정이 시작된 점으로 보아, 당시 『북정록』의 내용이 대부분 완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세조는 총 4차례나 『북정록』의 교정을 실시하게 하였으며, 『북정록』의 교정에는 영의정 이하 28명 이상의 대신들과 승지들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북정록』의 인쇄와 관련해서는 수백 권은 인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며, 『북정록』에 대한 교정은 3월 말에 끝나고 바로 인쇄·간행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정록』은 ‘경진북정’ 직후부터 왕명에 의해서 편찬이 시작되어 7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북정록』 간행에 쓰인 활자는 1455년(단종 3)에 만들어진 ‘乙亥字’이다. 1461년에 간행된 『북정록』은 ‘을해자’가 제작된지 불과 6년 뒤에 간행된 것으로 을해자본 초기의 서적이며, ‘을해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북정록』에 남아있는 장서인을 통해 이 책이 개국공신인 의령남씨 남재의 후손에게 배부되었고, 남구만과 남학명 부자의 집안에 소장되었다가 일제강점기에 이인영, 해방 후 이병직, 최현배의 손을 거쳤음을 알 수 있어 이 책의 소장 내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북정록』은 미국 버클리대학교(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동아시아도서관에 1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조선후기 ‘校書館印書體字’로 간행된 것이다. 즉 『북정록』은 1461년에 ‘을해자’로 처음 간행되었으며, 조선 후기 숙종 연간에 ‘교서관인서체자’로 재간행된 것이다.

더구나 『북정록』의 여러 필사본도 전하는데, 대체로 필사본의 필사 주체나 시기 등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북정록』은 1461년에 처음 ‘을해자’

로 간행된 이후 필사본의 형태로 전해지기도 하였으며, 조선 후기에 ‘교서관인서 체자’로 재간행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북정록』이 가지는 성격, 즉 세조대 여진 정벌의 명분과 정당성을 알리는 프로파간다적 성격에 충실하였던 결과였으며, 이러한 프로파간다적 성격이 지속된 것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1461년에 편찬된 『북정록』은 실록과 여러 문적을 상고한 것이지만 당대에 편찬된 것으로 1차 사료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북정록』의 내용 대부분은 『세조실록』과 동일하지만, 일부는 『세조실록』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북정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 조선과 여진·명 관계를 보다 자세히 알려주는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1. 사료

『세조실록』, 『중종실록』, 『광해군일기』, 『신증동국여지승람』, 『東文選』, 『大東韻府群玉』, 『列聖御製』, 『北征錄』.

2. 단행본 및 자료

고령신씨문헌간행위원회, 1984, 『保閑齋全書』 下, 북정록(張在鈺 역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國朝征討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9, 『西征錄』
박정민, 2015, 『조선시대 여진인 내조 연구』, 경인문화사
이점노, 1987, 『통문관 책방비화』, 민학회
이규철, 2022, 『정벌과 사대-15세기 조선의 대외정벌과 대명의식』, 역사비평사
이인영, 1944, 『淸芬室書目』, 보화각
이인영, 1954, 『韓國滿洲關係史의 研究』, 을유문화사

3. 논문

강성문, 1989, 「朝鮮시대 女眞征伐에 관한 연구」, 『군사』 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노영구, 2007, 「『國朝征討錄』 편찬의 특징과 자료적 가치」, 『장서각』 18
안선미, 2020, 「세조대 申叔舟의 對女眞活動과 備邊對策」, 한국고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종록, 2003, 「申叔舟의 軍事政策과 재상으로서의 經綸」, 『역사학논총』 3·4
이규철, 2013, 「조선초기의 對外征伐과 對明意識」,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인영, 1942, 「을해자소고」, 『서물동호회회보』 17
이인영, 1947, 「申叔舟의 北征」, 『진단학보』 15
이현희, 1967, 「古書解題, 『北征錄』」, 『국회도서관보』 통권 42호
임재완, 1997, 「『北征錄』 解題」, 『서지학보』 19
임흥빈, 1990, 「《西征錄》의 編著者에 관하여」, 『군사』 21
한국서지학회, 1997, 「『北征錄』 影印」, 『서지학보』 19·20
한성주, 2008, 「朝鮮 세조대 毛憐衛 征伐과 여진인의 從軍에 대하여」, 『강원사학』 22·23
한성주, 2012, 「한성주, 「조선 세조대 ‘여진 화해사’에 대한 연구-신숙주의 파견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8
황선희, 2007, 「世祖 초기의 女眞關係와 北征」,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謝肇華, 2005, 「浪孛兒罕事件与女真民族精神的覺醒」, 『滿族研究』 5

王臻, 2006, 「明朝与李朝在郎卜爾罕問題上的政策之比較研究」, 『史学集刊』 1

高橋公明, 1987, 「朝鮮遣使ブームと世祖の王權」, 『日本前近代の国家と対外關係』, 吉川弘文館

河内良弘, 1974, 「申叔舟の女真出兵」, 『朝鮮學報』 71

4. 기타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투고일: 2023년 03월 19일 심사완료일: 2023년 04월 10일 게재확정일: 2023년 04월 10일

■ Abstract ■

A Study of Propaganda in the Bukjeongrok : The Early Joseon Dynasty's Conquest of the Jurchens

Han, Seong-joo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examines the role of propaganda and the politics behind the compilation of the Bukjeongrok, a six-volume government record created in 1461 that details the conquest of Moryeonwi by Joseon in 1460 during the 6th reign of Sejo. The book is the only government record that has been identified for its compilation history and publication in the records for conquering Jurchens in the early Joseon period.

According to the study, the Ming Dynasty called for reconciliation between Joseon and Jurchens to improve the discord situation. However, the Joseon government accused the Jurchens of betrayal. The Joseon legitimated their conquest as response to this betrayal. Compiled just after the conquest of the Jurchens by order of Sejo, the Bukjeongrok and its contents detail the events leading to the conquest as a means of legitimating their actions. Over 28 ministers and officials contributed to editing, and it was printed seven months later in 'Ueulhae (乙亥字)' block type printing in 1455 (the 3rd year of Danjong). Eventually, the book's extant edition was passed on to the descendent of Nam jae, the founding contributor, and fell into the hands of the family of Nam Gu-man and his son Nam Hak-myeong. After Japanese colonization it passed on to Lee Yin-young and after the 8.15 liberation to Lee Byeong-jik and Choi Hyun-bae. It was finally reprinted in the late Joseon period under the title Gyoseogwaninseocheja (校書館印書體字).

This study argues that the book's reprints and various versions demonstrate the text's enduring value as a historical record and propaganda tool. It also sheds light on the intricate relationship between the Joseon, Ming, and Jurchens. Although historical texts found in the Annals and several related documents were used in the compilation of the Bukjeongrok, the book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primary historical record of its time. It also includes details not recorded in the

Annals of Sejo, making it an essential resource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Joseon, Ming, and Jurchens during that period.

Key words: Joseon, Jurchen, Conquest, Bukjeongrok, Propaganda